

# 명대 중기 시문선집 《文體明辨》의 문체론 고찰\*

唐潤熙\*\*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選文의 기준과 문체 분류
  - 2.1 문장을 빌려 문체를 구별한다(假文以辨體)
  - 2.2 正編과 附錄
3. 序題 형식의 계승과 발전
  - 3.1 문체의 正變과 古今의 분류
  - 3.2 新文體의 분류와 비평
  - 3.3 俗文學의 문체 분류와 비평
4.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문체론은 오랫동안 중국고전문학 비평론에서 중요한 범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문체의 구별[辨體]”, 즉 문체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은 문체론에서도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明代에는 문체론에 대한 관심과 함께 특히 “문체의 구별[辨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문체의 원류와 특징을 탐구함으로써 문장의 체식을 올바르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명대에 간행된 《文章辨體》, 《文體明辨》, 《文章辨體彙選》 등은 본격적으로 문체론을 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7238).

\*\* 建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루고 있는 저작으로 평가된다.<sup>1)</sup>

그 중 명대 중기에 간행된 徐師曾의 《文體明辨》은 역대의 문장을 모은 시문선집인 동시에 또한 “문체의 구별〔辨體〕”을 중점적으로 다룬 문체론 저작이다. 《문체명변》은 명대 전기에 간행된 吳訥의 《文章辨體》를 바탕으로 문체의 분류를 더욱 세분하였고, 각종 문체의 원류와 변천을 탐구하고 체식의 특징을 논술함으로써 다양한 문체를 구별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문체명변》은 《문장변체》와 동일하게 각 문체의 앞에 수록한 “序題”라는 짤막한 평론을 통해 중국고전문학 문체의 특징과 성격, 통시적 변화 과정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문체명변》은 《문장변체》의 序題 형식을 계승하여 문체를 구별하고, 문체에 따라 시문을 선별하여 수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문체의 분류, 연원, 변화와 체제를 드러내는 문체 비평 방식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평가받는다. 이 책은 고대의 단편적인 문체로부터 명대의 속문학의 문체까지 중국문학의 문체론을 집대성한 일종의 “문체학사”로서 명대의 문학비평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2)</sup>

《문체명변》의 저자인 徐師曾(1517~1580)의 자는 伯魯, 호는 魯庵, 室名은 湖上草堂으로 蘇州 吳江縣(지금의 蘇州市 吳江區) 사람이다. 徐氏의 조상은 본래 嬴姓이며 太末에 거주하였는데, 元朝 때에 徐潛이라는 인물이 龍慶州에 任職하면서 吳江 南麻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서사증은 아버지인 徐朝와 측실인 凌氏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7세 때부터 독서하기 시작하여 12세에 시를 읊고 古文詞를 지었다. 서사증은 14세에 처음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고 30세 때 鄉試에 급제하였다. 그는 진사 시험에 급제하지 못했을 때도 군수의 추천을 받아 御使試에 선발되고 현령의 포상을 받는 등 문학적 명성이 높았으므로 吳江의 학생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수학하였다고 한다.

1) 명대에는 《文章辨體》, 《文體明辨》, 《文章辨體彙選》 외에도 序題를 붙이는 방식으로 문체를 논한 시문총집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黃佐의 《六藝流別》 20권, 黃溥의 《詩學權輿》 22권, 周挺輯注, 陳繼儒批點의 《刪補唐詩選脈箋釋會通評林》 60권 등이 모두 그러하다. 吳承學 <明代文章總集與文體學—以《文章辨體》等三部總集爲中心>, 89쪽 참고.

2) 吳承學, <明代文章總集與文體學—以《文章辨體》等三部總集爲中心>, 88쪽.

서사증은 嘉靖 癸丑(1553)년 36세 되던 해에二甲 제 77등으로 마침내 진사 시험에 합격하여翰林院 庶吉士가 되었고, 2년 후인 1555년에 兵科給事中으로 차출되었다가 다음해에 嫡母 王氏의 상을 치르기 위해 귀향하였다. 1559년에 吏部給事中의 관직을 받으며 복직하였고 1561년에 兵科右給事中, 刑科左給事中 등의 관직을 받았으나 脾疾을 앓아 고향으로 돌아가 병을 치료하였다. 서사증은 그 후 관직에 복직했다가 다시 발병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으므로 1564년부터 고향에서 병을 치료하며 免職을 청하는 상소를 연이어 올렸고 1571년 55세 되던 해에야 허락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다. 萬曆 甲戌(1574)년 58세에 다시 禮科左給事中을 제수 받았으나 힘써 사양하였다.

萬曆 庚辰(1580)년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서사증은 鄉賢祠에 모셔졌으며, 太倉 사람 王世懋가 그를 위해 <徐魯庵先生墓表>를 지었다. 서사증은 고향의 서재에 萬卷의 책을 모아두었고 관직에 등용되어 출세하기보다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였다. 그는 깊은 학식을 지녀 經史와 律曆, 의학 등에 두루 정통하였고, 만년에는 저작에 몰두하여 《周易演義》, 《禮記集注》, 《正蒙章句》, 《世統紀年》, 《湖上集》, 《文體明辨》, 《詠物詩編》, 《臨川文粹》, 《大明文鈔》, 《宦學見聞》, 《六科仕籍》, 《吳江縣志》, 《小學》, 《史斷》, 《經絡全書》 등 수백 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겼다.<sup>3)</sup>

<문체명변서>에 의하면 서사증은 嘉靖 33년(1554)부터 隆慶 4년(1570)까지 질병으로 인해 출사와 귀향을 되풀이하면서도 약 17년의 시간을 들여 《문체명변》을 완성하였다. 《문체명변》은 《正集》 61권과 《綱領》 1권, 《(정집)目錄》 6권, 《附錄》 14권, 《(부록)目錄》 2권을 합하여 모두 84권으로 구성되었다.<sup>4)</sup> 《문체명변》은 隆慶 4년(1570)에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3) 이상 서사증의 생애에 관한 내용은 王世懋의 <徐魯庵先生墓表> 참조. 徐師曾 저, 羅根澤 교점, 《文體明辨序說》, 174-176쪽.

4) 徐師曾, <文體明辨序>, “《文體明辨》六十一卷, 《綱領》一卷, 《目錄》六卷, 《附錄》十四卷, 《目錄》二卷, 通八十四卷, 撰述始嘉靖三十三年甲寅春, 迄隆慶四年庚午秋, 凡十有七年而後成其書.” 徐師曾 저, 羅根澤 교점, 《文體明辨序說》, 73쪽.

서사증이 <自序>를 쓴 것은 萬曆 원년(1573)이다. 통행본에 萬曆 辛卯(19년, 1591)에 쓴 趙夢麟의 <刻文體明辨序>와 같은 해에 쓰여진 顧爾行的 <文體明辨序>가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시기에 刊本으로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中國善本書目》에 의하면, 《문체명변》의 주요한 판본으로는 萬曆 연간 遊榕의 銅活字印本과 萬曆 19년의 趙夢麟 刻本, 明抄本, 崇禎 13년(1640) 沈芬, 沈驥의 箋注本 등이 전한다. 影印本으로 간행된 《四庫全書存目叢書》本(集部 제310-312책)에 수록된 판본은 遊榕의 銅活字印本으로 “歸安少溪茅乾健夫校正, 閩建陽遊榕制活板印行”의 題記가 수록되어 있다.<sup>5)</sup>

국내에서 발표된 《문체명변》에 대한 연구 성과로서, 안병설의 <문체명변고>이<sup>6)</sup>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고 오혜진의 <明代徐師曾《文體明辯》之總集及文體研究價值>라는 논문이<sup>7)</sup> 중국어로 책의 대략을 소개하였다. 국외의 연구는 중국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고대 문체론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문체명변》의 내용과 학술적 가치를 논하는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sup>8)</sup> 《문체명변》은 중국문학사에서 문체론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저작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문은 문체학 연구의 기초 자료인 《문체명변》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 책의 체례와 구성, 詩文을 선록한 기준 등을 살펴보고 문체론 저작으로서 문체 분류의 특징과 문체론의 성격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選文의 기준과 문체 분류

오늘과 서사증 두 사람은 100여년의 차이를 두고 吳江縣이라는 같은 마을에

5) 자세한 내용은 仲曉婷, 《《文章辨體》研究》, 41쪽. 부록2. 《文體明辨》의 流布 참조.

6) 《어문학논총》 제3권,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84, 507-521쪽.

7) 《건지인문학》 7집,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2012, 181-205쪽.

8) 賈奮然, <論《文體明辨序說》的辨體觀>(2007), 吳承學, <明代文章總集與文體學——以

살았다. 서사증은 <서문>에서 동향의 선배 학자인 오늘을 특별히 언급하고 오늘의 《문장변체》의 체제와 사상을 계승하였음을 밝혔다. 《문체명변》은 《문장변체》를 근거로 하였으며 문체 구별의 방법론과 選文의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문장을 빌려 문체를 구별한다(假文以辨體)

서사증이 《문체명변》을 편찬하게 된 동기와 選文의 기준에 대해서는 스스로 쓴 <문체명변서>를 통하여 그 대강을 살펴볼 수 있다.

대체로 같은 마을의 常熟 文恪公 吳訥이 편찬한 《文章辨體》를 위주로 하여 내용을 빼거나 보태었다. 《문장변체》는 50종으로 분류하였지만 지금 《문체명변》은 101종이다. 《문장변체》는 《外集》 안에 5종을 분류하였지만 지금 《문체명변》은 《附錄》 안에 26종을 분류하였다. 律賦와 律詩를 正編에 넣었으니 賦는 같은 문류에 종속시킨 것이고 詩는 正體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릇 문장에 체제가 있는 것은 궁실에 제도가 있고 기물에 법식이 있는 것과 같다. 堂은 반드시 널찍해야 하고 방은 반드시 아늑해야 하고 누대는 반드시 사방에서 보이게 높아야 하고 누각은 반드시 협소하고 굽이진 곳에 있어야 한다. 둥그런 광주리는 반드시 둥글도록 하고 네모난 광주리는 반드시 네모나게 만들어야 한다. 보 제기는 반드시 밝은 네모지되 안은 둥글어야 하며 궤 제기는 반드시 밝은 둥글되 안은 네모져야 한다. 각각의 (궁실과 기물에) 마땅한 바가 있으니, 만약 제도와 법식을 버리고 마음대로 만든다면 식자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문장은 어떠하겠는가?

문장의 체식은 《시경》과 《서경》에서 비롯되었다. 《시경》 311편의 날줄과 씨줄을 이루는 것은 각 세 가지가 있다. 《서경》의 체식은 여섯 개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후에 안지추가 논의를 확장하여 문체는 각각 五經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진실로 견식이 있었다.”<sup>9)</sup>

《文章辨體》等三部總集爲中心>(2008), 李樹軍 <《文章辨體》與《文體明辨》의 歌行與樂府研究>(2008), 馬欣華의 《中國文論中的“文體”關鍵詞研究》(2010) 등이 있다. 그 외에 학위논문으로 仲曉婷의 석사학위논문인 <《文章辨體》研究>(2006)이 있다.

9) 徐師曾, <文體明辨序>, “大抵以同郡常熟吳文恪公訥所纂《文章辨體》爲主而損益之. ;

서사증은 <자서>에서 자신의 책이 오늘의 《문장변체》의 영향을 받았고 《문장변체》를 기반으로 문체를 더 증보하였음을 밝혔다. 이어서 “문장에 체제가 있는 것은 궁실에 제도가 있고 기물에 법식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천명하며, 문장의 체제는 문장의 제도와 법식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문장의 법식이 되는 문장의 체제, 즉 “文體”를 모른다면 아름답고 훌륭한 문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문체의 근원은 《시경》과 《서경》과 같은 先秦 시기의 경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확장하여 모든 문체는 五經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 顏之推의 의견에 찬동하였다.

서사증의 문체에 대한 인식은 오늘의 《문장변체》가 내세운 시문 선록의 기준을 계승한 것이다. 오늘은 <범례>의 첫머리에서 “문사는 체제가 우선이다(文辭以體制爲先)”라고<sup>10)</sup> 밝혔다. “문체의 구별”, 즉 “辨體”는 문체에 대한 “正名”이라고 할 수 있다. “문체의 구별(辨體)”은 각 문체의 원류와 연원,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중국고전문학 비평론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문체의 구별(辨體)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의미는 다양하지만, “체제가 우선이다(以體制爲先)”라는 원칙은 문체 비평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명제가 되었다.<sup>11)</sup>

서사증은 《문장변체》의 문체론의 영향을 받아 “문체”를 문장의 작문과 비평론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였고, 《문체명변》에서 문체의 구별(辨體)을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었다. 서사증이 <문체명변서>에서 《문체명변》의 편찬 동기와 편찬과정에 대해 서술한 것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辯體》爲類五十，今《明辯》百有一；《辯體》外集爲類五，今《明辯》附錄二十有六。進律賦、律詩於正編，賦以類從，詩以近正也。夫文章之有體裁，猶宮室之有制度，器皿之有法式也。爲堂必敞，爲室必奧，爲臺必四方而高，爲樓必狹而修曲，爲宮必圓，爲篲必方。爲篲必外方而內圓，爲臺必外圓而內方，夫固各有當也。苟舍制度法式，而率意爲之，其不見笑於識者鮮矣。況文章乎？夫文章之體，起於《詩》、《書》，詩三百十一篇，其經緯各三；書體六，今存者三。厥後顏氏推論，凡文各本五經，良有見也。”徐師曾 著，羅根澤 교점, 《文體明辨序說》，73쪽.

10) 吳訥, <凡例>, “文辭以體制爲先.” 吳訥 著, 于北山 교점, 《文章辨體序說》 9쪽.

11) 任競澤은 “문장의 구별(辨體)”이 정형화된 것은 宋代이며 元, 明, 淸은 辨體論이 성행하며 집대성되었던 시기로 보았다. 任競澤, <“文章以體制爲先”의 文體論源流>, <명대 시문선집 《문장변체》의 문체론에 대한 고찰>, 70쪽 재인용.

秦漢 이래로 문장은 더욱 성하였다. 문장이 더욱 성하자 문류가 더 늘어났다. 문류가 더 늘어나자 문체가 더욱 많아졌다. 문체가 더 많아지자 구별도 더 엄격해졌다. 이것이 吳公의 《문장변체》가 지어진 이유이다.

나 사증은 어릴 때부터 古文을 좋아하였는데, 외람되어 관원에 선발된 후 문장을 다루는 직임을 맡게 되어 남몰래 기뻐하였다. 그러나 진보가 없던 중에 다행히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참된 기준을 보게 되었다. 이른 바 “문장은 반드시 체제가 우선이며, 그 뒤에 좋음과 나쁨을 논할 수 있다. 만약 그 체제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겠는가?”라는 말이었다. 그리하여 옛 책을 극찬하고 이를 높여 준칙으로 삼았다. 나 사증은 퇴청한 후에는 그 책을 즐겨 보았다.

그렇게 오래 지나자 마침내 문체를 짓는 요령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그 책의 비평과 분류에 빠진 것도 많고 취사가 적절치 않은 것도 있어서 어떤 것은 두 문류를 하나로 묶었고 어떤 것은 正變을 섞어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내 마음에 모두 합당하지는 않았다. 이에 스스로의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책을) 다시 편찬하며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용렬한 재주로 조정에 거할 때였으나 퇴청하고 식사 후 여가 시간마다 그 뜻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자신의 직분이 아닌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이윽고 병으로 몰려나 집에 거하게 된 이후에는 (책이) 점차 쌓여 책갑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서명으로 바꾸어 마침내 예전의 뜻을 이루었다. (중략) 이 책을 편찬하면서 (문장을) 수록한 것은, 다만 문장을 빌려 문체를 분별하려는 것이지 문체를 세우고 문장을 선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장의) 선택과 수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sup>12)</sup>

서사증은 《문장변체》를 통해 “문장의 체식”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오랫동안 책을 탐독하면서 마침내 문체에 맞게 문장을 짓는 요령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연구하다보니 그 책의 장점과 함께 단점도 드러나서 《문장변체》의 문체 분류 가운데 빠진 것이나 취사가 적절치 않은 문제점도 보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사증은 어떤 문체는 분류가 너무

12) 徐師曾, <文體明辨序>, “蓋自秦漢而下, 文愈盛; 文愈盛, 故類愈增; 類愈增, 故體愈衆; 體愈衆, 故辯當愈嚴: 此吳公《辨體》所爲作也。曾成童時即好古文, 及叨館選, 以文字爲職業, 私心甚喜, 然未有進也。幸承師授, 指示真銓, 謂文章必先體裁, 而後可以論工拙; 苟失其體, 吾何以觀? 亟稱前書, 尊爲準則。曾退而玩索焉, 久之, 而知屬體之要領在是也。第其書品類多闕, 取捨失衷, 或合兩類而爲一, 或混正變而未分, 於愚意未有當也。竊不自量, 方更編摩, 而以庸劣紕居瑣垣; 然退食之餘, 志不沮喪, 蓋忘其非吾職也。已而謝病家居, 積累成裘, 更以今名, 聊畢前志。(중략) 是編所錄, 唯假文以辯體, 非立體而選文, 故所取容有未盡者。”《文體明辨序說》, 78쪽.

간략하거나 어떤 문체는 正體와 變體를 섞어놓아 구분하지 않는 등 문체 분류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분류를 수정하고 증보하여 다시 편찬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관직에 있을 때부터 여가 시간마다 틈틈이 문체를 정리하고 보충하였고 病暇로 집에 있을 때 더욱 매진하여 17년의 시간을 들여 《문체명변》을 완성하였다.

서사증의 시대는 오늘 of 시대로부터 이미 100여년이 지난 이후로, 復古主義의 발현, 陽明學의 성행, 속문학의 발전과 같이 명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변화가 사회의 여러 부분에 반영되어 표면화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명대 전기에 간행된 《문장변체》의 문체 분류는 서사증이 생존하던 명대 중기의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명대 중기의 문화 배경 속에서 서사증이 문체에 대해 가졌던 인식은 오늘 of 문체론으로부터 역시 일정한 변화가 있었기에 《문체명변》의 편찬을 결심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문체명변》의 문체론 저작으로서의 성격은 “다만 문장을 빌려 문체를 분별하려는 것이지, 문체를 세우고 문장을 선록하려는 것이 아니다(唯假文以辯體, 非立體而選文)”라는 말에 나타난다. 서사증은 자신의 저작이 시문선집의 기능보다는 문체론 저작으로서의 기능과 의미에 더욱 치중되어 있음을 보였다. 《문체명변》의 편찬 목적이 문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수록된 詩文들은 문체를 분류하고 구별하기 위한 예시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서사증 자신이 서문의 말미에 밝힌 바와 같이 예시로서 선택되고 수록된 문장들이 모두 명실상부한 名文들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양수의 <醉翁亭記>와 같이 널리 알려진 名文이라도 문체 분류의 實例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록되지 않았다. 또 다른 예로 “古歌謠辭”의 序題를 보면, 문체 아래에 “歌”, “謠”, “謳”, “誦”, “詩”, “辭”, “諺”의 세부 분류를 하였고 대체로 夏, 殷, 周, 漢代의 歌謠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謠”의 분류에 唐李賀의 <古鄴城童子謠效王粲刺曹操> 시가 수록되어 있다. 서사증이 “古歌謠辭”의 序題에서 “비록 당시에 지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채록할 만한 것이 있다(雖未必當時所作, 然亦有可採者)”라고<sup>13)</sup> 말한 것처럼 李賀의 시는 옛

가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옛 가요의 문체를 지니고 있으므로 “謠”의 문체에 선록되었다. 이러한 選文은 조금은 엉뚱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이와 같이 《문체명변》의 편찬 목적은 “문체의 구별(辨體)”에 있었고 “문장의 선별(選文)”에 있지 않았으며 수록된 詩文들은 주로 각 문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었다. 어떤 작품들은 “문장이 뛰어나지 않아도(文不工)” 문체 구별의 의의가 있으면 수록되기도 하였고, 또 중요한 작품이지만 문체의 구별에 큰 의미가 없다면 수록되지 않았다. 《문체명변》은 《문장변체》와 비교하여 문체론의 관점과 목적의식이 더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체명변》은 권두에 “文章綱領”을 두었고 또 “總論”, “論詩”, “論文”, “論詩餘”의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 文體論을 총괄하였다. 그 내용은 《문장변체》의 “諸儒總論作文法”을 참고한 것이 많으며 “문체의 구별(辨體)”이라는 관점에서 문체의 특징과 작문의 요령을 논평한 문장들을 함께 모아놓은 것이다. 마지막에는 <宋陳德秀批點法>, <大明唐順之批點法> 등을 수록하여 批點을 사용하여 문장을 평론하는 방법을 귀납하여 두었는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문장은 체제를 우선으로 한다(文章以體制爲先)”는 문학론은 宋代로부터 비롯되었으며 明代에 이르러 문체의 규범, 원류 및 正變에 대해 탐구하고 “문체를 구별(辨體)”하는 풍조가 더욱 성행하면서 문체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역대 문체학과 문체 비평의 성취는 주로 詩文評의 저작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명대 문체학의 성취와 독창적인 특징은 시문선집과 문체학이 하나의 저작 안에 겸비된 일련의 文章總集 가운데서 체현되었다고 평가받는다.<sup>14)</sup> 이와 같은 명대 문체학의 발전 양상은 《문체명변》에 뚜렷하게 드러났다. 《문체명변》은 비록 시문선집이지만, “다만 문장을 빌려 문체를 구별한다(唯假文以辯體)”는 목적으로 시문들을 선록하였다고 할 만큼 문체론에 중점을 둔 저작이었다.

13) 徐師曾, <古歌謠辭>, “至若國風以前, 歌謠之屬, 見諸傳記, 不一而足; 雖未必當時所作, 然亦有可採者. 及考其別, 則有歌, 有謠, 有謳, 有誦(不歌曰誦), 有詩, 有辭, 不特歌謠二者而已. 古今各採一二, 以著詩之本始, 而以歌謠二者括之.”《文體明辨序說》, 98쪽.

14) 吳承學, <明代文章總集與文體學——以《文章辨體》等三部總集爲中心>, 86쪽.

## 2.2 正編과 附錄

《문체명변》은 “문체의 구별(辨體)”을 위해 문장들을 수록하고 문체를 세밀하게 분류하였다. 특히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체들, 혹은 전통적인 문체 분류학에서 주의하지 않았던 문체들까지 모두 수록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선진 시기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문체뿐만 아니라 唐代와 宋代 이후에 출현한 新文體들과 俗文學의 문체도 모두 문체론의 범주에 넣었다.

서사증은 전통적인 문체와 신문체들이 모두 통시적인 관점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五經으로부터 비롯된 문체들이 詩文의 모범이며 이러한 전통적인 문체들로부터 여러 새로운 문체가 파생되어 발전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러므로 문체에는 古수와 正變의 구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관하여 <문체명변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혹자는 문장은 본래 체식도 없고 또 正變과 古수의 차이도 없다고 말하면서 周公과 孔子를 들어 증거로 삼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서경》의 <無逸>과 <周官>은 ‘訓’이고 ‘誥’와 혼동되지 않으며, <多士>와 <多方>은 ‘誥’이고 ‘訓’과 다르다는 것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문장의 體式이다.

서사의 방법으로 의론하는 것은 의론의 變體이고, 의론의 방법으로 서사하는 것은 서사의 變體이니, 正體와 變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詔, 誥, 表, 牋 등의 문류는 고대에는 散文으로 지어 깊고 온후한 풍격이었으나, 지금은 변려문으로 지어 곱고 부드러운 풍격을 지니게 되었으니, 古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중략) 제목이 달라도 문체가 같은 것이나 문장이 뛰어나지 않은 것도 수록하였다. 또 별도의 격식을 이룬 것, 예를 들어 육조와 당대 초기의 문장, 육선공주의 등은 함께 수록하지 않았다. 해박한 군자들께서 스스로 구해보시길 바란다. 《부록》은 동네 거리와 집안사람들의 일이며 배우들의 격의 없는 이야기이다. 본래 우리 유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알면서도 써놓지 않는다면 세상일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또 마음속으로 구별하지 못하면서 밖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사람들을 속인다면 역시 유학자의 수치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기록하여 붙였다.”<sup>15)</sup>

15) 徐師曾, <文體明辨序>, “或謂文本無體, 亦無正變古今之異, 而援周公以爲證, 殊不知<無逸>、<周官>, 訓也, 不可混於誥; <多士>、<多方>, 誥也, 不可同於訓; 此文之體也。

서사증은 隋 顏之推가 주장한 “문장은 五經에서 생겨났다[文出五經]”는 유가의 전통적인 문학론을 지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에는 正變과 古今의 차이가 있다”는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문체의 분화와 발전을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五經에서 출발한 문체가 다양한 내용과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문체로 다변화되는 양상을 분류하고 귀납하였고, 문체의 내용과 기능, 형식과 심미성 등 여러 방면에서 심도 있게 고찰한 문체들을 《正編》과 《附錄》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문체명변》의 문체 분류의 특징 중 하나는 《附錄》을 통해 명대의 문학 사조의 변화를 기록하고 진지하게 고찰한 점이다. <서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록》 중에는 “동네 거리와 집안사람들의 일이며 배우들의 격의 없는 이야기[閭巷家人之事, 俳優方外之語]”인 俗文體가 수록되었다. 《부록》에는 송대 이후 민간에서 유행한 각종 속문체가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불교나 도교와 관련된 종교적인 문체들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체들은 모두 《문장변체》에는 실리지 않았던 것들로서, 《문체명변》과 《문장변체》의 문체 분류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이다.

《문체명변》의 문체는 모두 121종으로 분류되었고 《정집》에 95종, 《부록》에 26종의 문체가 나뉘어 실려 있다. 《문장변체》가 문체를 60종으로 구별한 것에 비해 《문체명변》은 121종으로 구별하여 문체의 분류와 편찬 체제가 더욱 세밀해졌으며 수록한 문장의 수량도 크게 늘어났다.<sup>16)</sup> 《문장변체》에 수록된 詩文은 詩 1426수, 賦 86편, 詞 40수, 文 777편으로 도합 2329편인

至如以敘事爲議論者，乃議論之變；以議論爲敘事者，乃敘事之變，謂無正變不可也。又如詔、誥、表、牋諸類，古以散文，深純溫厚；今以儷語，濃鮮穩順，謂無古今不可也。(중략) 亦有題異體同，而文不工者，復有別爲一格，如六朝唐初文，陸宣公奏議，今並弗錄，博雅君子，當自求之。至於附錄，則閭巷家人之事，俳優方外之語，本吾儒所不道，然知而不作乃有辭於世，若乃內不能辨，而外爲大言以欺人，則儒者之恥也，故亦錄而附焉。萬曆改元歲在癸酉三月朔旦，吳江徐師曾序。” 《文體明辨序說》，78쪽.

16) 서사증은 <자서>에서 《정집》에 101종, 《부록》에 26종을 수록하여 모두 127종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목록에 수록된 문체의 항목을 세어보면 《정집》에 95종, 《부록》에 26종으로 전체 문체의 수는 121종이다. 仲曉婷, <徐師曾《文體明辨》研究>, 25쪽. 第一節 《文體明辨》의 文體分類數目考 참고.

데, 《문체명변》은 詩 2327수, 賦 99편, 詞 504수, 文 1948편으로 모두 4878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문체 분류의 변화는 오늘과 서사증의 문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함께 시대의 흐름에 따른 문학 풍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아래에서 《문체명변》의 문체 분류를 살펴볼 수 있도록 연번을 붙여 정리하였다. 특히 《문장변체》와의 계승 관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문체명변》의 문체 분류 오른쪽에 관련이 있는 《문장변체》의 문체를 표로 만들어 병기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권차를 표시한다. (외)는 《문장변체》의 《外集》을 가리키고 (부)는 《문체명변》의 《附錄》을 가리킨다.

	문체명변	문장변체		문체명변	문장변체		문체명변	문장변체
1	古歌謠辭(1)	古歌謠辭(1)	42	露布(30)	露布(19)	83	述(52)	
2	四言古詩(1)	古詩(10-14)	43	公移(30)		84	墓志銘 (52-54)	墓志(49) 墓記(49) 埋銘(49)
3	楚辭(1-2)	古歌謠辭(1)	44	判(30)	判(외1)	85	墓碑文(55-56)	墓碑(48)
4	賦(3-5)	古賦(2-5) 律賦(외1)	45	書記 (31-33)	書(26-28)	86	墓碣文(56)	墓碣(48)
5	樂府(6-10)	樂府(6-9)	46	約(33)		87	墓表(56)	墓表(48)
6	五言古詩 (11-12)	古詩(10-14)	47	策問(34)	制策(18)	88	謚議(57)	謚議(46) 謚法(46)
7	七言古詩(13)	古詩(10-14)	48	策(34-37)	制策(18)	89	傳(58-60)	傳(45)
8	雜言古詩(13)	古詩(10-14)	49	論 (38-41)	論(35-36)	90	哀辭(60)	誄辭, 哀辭 (50)
9	近體歌行(13)		50	說(42)	說, 解(37)	91	誄(60)	誄辭, 哀辭 (50)
10	近體律詩 (14-15)	律詩(외2-3)	51	原(42)	原(39)	92	祭文(61)	祭文(50)
11	排律詩(15)	排律(외2-3)	52	議(42)	議(24)	93	吊文(61)	祭文(50)
12	絕句詩(16)	絕句(외4)	53	辨(43)	辨(38)	94	祝文(61)	
13	六言詩(16)		54	解(43)	說, 解(37)	95	碣辭(61)	
14	和韻詩(16)		55	釋(43)		96	雜句詩(부1)	
15	聯句詩(16)	聯句詩(외4)	56	問對(43)	問對(44)	97	雜言詩(부1)	

17) 仲曉婷, 《徐師曾《文體明辨》研究》, 10-11쪽.

16	集句詩(16)		57	序 (44-45)	序(32-34)	98	雜體詩(부1)	雜體詩 (외4)
17	命(17)	諭告(15)	58	小序(45)	序(32-34)	99	雜韻詩(부1)	
18	諭告(17)	諭告(15)	59	引(45)	序(32-34)	100	雜數詩(부2)	
19	詔(17)	詔(16)	60	題跋(45)	題跋(40)	101	雜名詩(부2)	
20	敕(18)		61	文(46)		102	離合詩(부2)	
21	璽書(18)	璽書(15)	62	雜著(46)	雜著(41)	103	詠諧詩(부2)	
22	制(18)	制, 誥(17)	63	七(46)	七體(44)	104	詩餘(부3-11)	近代曲詞 (외5)
23	誥(19)	制, 誥(17)	64	書(46)		105	玉牒文(부12)	
24	冊(20)	冊(17)	65	連珠(46)	連珠(외1)	106	符命(부12)	
25	批答(21)	批答(15)	66	義(46)		107	表本(부12)	
26	御札(21)		67	說書(46)		108	口宣(부12)	
27	敕文(21)		68	箴(47)	箴(42)	109	宣答(부12)	
28	鐵券文(21)		69	規(47)		110	致辭(부12)	
29	諭祭文(21)	祭文(50)	70	戒(47)	戒(39)	111	祝辭(부12)	
30	國書(21)		71	銘(47)	銘(42)	112	貼子詞(부12)	
31	誓(21)		72	頌(48)	頌(43)	113	上梁文(부13)	
32	令(21)		73	贊	贊(43)	114	樂語(부13)	
33	教(21)		74	評	贊(43)	115	右語(부13)	
34	上書(22-23)		75	碑文	碑(47)	116	道場榜(부13)	
35	章(24)		76	碑陰文	碑(47)	117	道場疏(부14)	
36	表(24-25)	表(19)	77	記(49-51)	記(29-31)	118	表(부14)	
37	箋(25)		78	志(51)	記(29-31)	119	青詞(부14)	
38	奏疏(26-28)	奏疏(21-23)	79	紀事(51)		120	募緣疏(부14)	
39	盟(29)		80	題名(51)		121	法堂疏(부14)	
40	符(29)		81	字說(52)				
41	檄(29)	檄(25)	82	行狀(52)	行狀(45)			

이상과 같이 《문체명변》은 각각 《정편》과 《부록》으로 편찬 체제를 나누고 121종의 문체를 분별하여 수록하였다. 그러나 《문체명변》의 《정편》과 《부록》의 분류는 《문장변체》의 《內集》과 《外集》의 분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문체의 분류 면에서 《문장변체》가 60종의 문체를 각각 《내집》과 《외집》에 나누어 수록한 것은 대체로 “正體”와 “變體”의 구별에 의한 것이다. 《문장변체》는 連珠, 判文, 律賦, 律詩, 排律, 絕句, 聯句詩, 近代詞曲의 문체를 소위 “變體”에 해당한다고 보고 《외집》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문체명변》에서는 이러한 문체들이 《정편》에 수록되었고, 약간의 변화와

과격이 있지만 역시 중국의 전통적인 문장체에 해당된다고 여겨졌다.

《문체명변》의 《부록》에는 송대 이후의 사회와 민간에서 유행한 유희적 성격의 俗文體와 함께 종교적 내용을 가진 문체들이 수록되었는데, 정편에 수록된 문체들과 비교했을 때 당시 사회에서 실용성보다는 오락성이 비교적 강하고 비주류에 속하는 민간 문학에 해당되는 문체들이었다. 예를 들어 致辭, 祝辭, 貼子辭, 上梁文, 樂語, 右語 등은 모두 민간의 속문체에 해당하며, 道場疏, 表, 青詞, 募緣疏, 法堂疏 등은 불교 혹은 도교의 교단에서 사용하는 문체들이다. 《문장변체》 이후 《문체명변》이 나타나기까지 10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명대는 속문학이 성행하였고 속문학의 발달은 새로운 문체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문체명변》의 문체 분류는 당시 속문학이 번성하던 시대의 문화적 변화를 드러내었고 속문체를 정리하고 그 문장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문체론의 범주와 영역을 넓혔다.

### 3. 序題 형식의 계승과 발전

“序題”는 시문선집 가운데 분류되고 나열된 각종 문체의 앞에 두어 문체의 기원과 연원, 변화 과정 및 문학적 특징을 풀이하고 설명한 글이다. 명대부터 시작된 序題는 명대 시문선집의 특징적인 편찬 방식이 되었고 이후 중국고전 문학 비평의 중요한 형식이 되었다.<sup>18)</sup>

오늘의 《문장변체》는 序題를 세워서 문체의 연원과 성격, 용도 등을 서술한 것이 특징인데, 서사증의 《문체명변》은 문체론과 문체 비평 방법, 구성과 편찬 체제 등 많은 부분에서 오늘의 《문장변체》를 따랐다. 《문체명변》은 《문장변체》처럼 각 문체 앞에 序題를 두어 문체의 연원, 용도와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문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되는 詩文을 분류하여 선

18) 吳承學, <明代文章總集與文體學—以《文章辨體》等三部總集爲中心>, 85쪽.

록하였다. 두 저작의 기본적인 편찬 체례는 유사하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문체의 분류, 序題의 작성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sup>19)</sup>

121종의 문체로 분류된 《문체명변》의 序題는 60종으로 분류된 《문장변체》보다 당연히 수량이 많을 뿐더러 분석이 상세하여 문체의 正變과 古今을 분류하고 내용과 용도에 따라 문체의 上位와 下位の 분류까지 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문체를 새롭게 세우고 序題를 붙여 논평하였으며, 주목받지 못했던 俗文學의 문체를 고찰함으로써 문체학의 범주를 넓혔다. 아래에서는 《문체명변》의 序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장변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점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3.1. 문체의 正變과 古今의 분류

<문체명변서>에서, “문장의 체식은 《시경》과 《서경》에서 비롯되었고”, “顏之推가 논의를 확장하여 ‘문체는 五經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진실로 견식이 있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서사증은 문체의 始原은 고대의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겨난 다양한 문체들은 모두 옛 경전의 문체와 계승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문체를 분류할 때 문체가 나타난 시대에 따라 정리하였다.

詩歌의 문체 분류를 살펴보면, 명대 전기에 간행된 《문장변체》는 ‘古歌謠

19) 본문에서 논의한 것 외에 《문체명변》과 《문장변체》의 체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歷代의 制, 冊, 詔, 誥 등의 문체에 대하여 《문장변체》는 이것이 모두 제왕의 언사이므로 《文選》과 《文章正宗》의 체례를 따라 다만 世代를 기록할 뿐 作者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文體明辨》은 《宋文鑒》과 《元文類》의 예를 따라 代言者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둘째, 《문장변체》는 문장의 編選에 있어서 구두어와 서면어의 구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명변》은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문장이므로 구어의 언어는 기록하기 마땅하지 않다[此書所主, 唯在文章, 則口諭等詞, 自不當錄]”라고 하였다. 셋째, 《문장변체》는 先儒들의 字號와 籍貫을 모두 표기하였다. 그러나 《문체명변》은 처음에는 進上할 생각으로 先儒들의 성명까지 병칭하였으나 후에는 모두 그렇게 하지 못했다. 仲曉婷, 《徐師曾〈文體明辨〉研究》, 10-11쪽 참조.

辭, '古賦'(楚, 兩漢, 三國六朝, 唐, 宋, 元, 國朝), '樂府'(郊廟歌辭, 愷樂歌辭, 橫吹曲辭, 燕饗歌辭, 琴曲歌辭, 相和歌辭, 清商曲辭), '古詩'(四言, 五言, 七言, 歌行)로 나누었다. 그러나 《문체명변》은 시가의 문체 구별을 더욱 상세하게 하였고, 각 詩體를 독립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시대 순으로 시가의 생성과 문체의 연혁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문체명변》에서 詩體의 분류는, '古歌謠辭', '四言古詩', '楚辭', '賦', '樂府', '五言古詩', '七言古詩', '雜言古詩', '近體歌行', '近體律詩', '排律詩', '絕句詩', '六言詩', '和韻詩', '聯句詩', '集句詩'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각 시가 문체의 발생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되었다. 黃帝와 堯舜의 시대에 불리던 시가들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가요사'에 수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4언고시'를 '고가요사'의 뒤에 실었다. '4언고시'는 주로 4언체 시가로 구성된 《詩經》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시경》이 황제와 요순의 시대 뒤에 바로 이어져 나왔으며 모든 시가 문학 발전의 근원이 됨을 나타내었다.

특히 《문장변체》에서는 4언시, 5언시, 7언시, 歌行을 '古詩'의 하위 문체로 함께 묶었으나, 《문체명변》에서는 '4언고시', '5언고시', '7언고시', '잡언고시', '근체가행'으로 모두 독립된 문체로 세웠으므로, 唐代의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전 漢代와 魏晉南北朝 시기의 古詩의 성립과 유행을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문체명변》에서 《外集》에 수록되었던 律詩, 排律, 絕句, 聯句詩 등이 모두 《정집》으로 옮겨지고 독립된 문체로 세워졌으므로, 선진시기부터 명대까지의 詩歌의 역사적 변천과 흐름을 일별할 수 있게 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문장변체》에서는 賦의 하위분류에 속하였던 '楚辭'가 독립된 문체로 구별되어 四言古詩, 楚辭, 賦의 순서로 세워진 것이다. 서사증은 이전에 홀시되었던 辭賦體에 대해 문체학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그리고 序題에서 楚辭가 춘추전국시기 楚나라의 노래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특징은 "兮" 字를 넣는 것이고, 屈原이 지은 <離騷>가 辭賦體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서술하였다. 그 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風과 雅가 이미 없어진 후에 楚狂의 <鳳兮>와 孺子の <滄浪>의 노래가 나왔으며, (그 노래가) 情으로부터 나와 禮義에 머물렀으므로 《詩經》의 六義와 거리가 멀지 않았다. 다만 文辭가 《시경》의 本體에서 약간 변하여 “兮”字로 구두를 삼았다. 楚聲은 이미 이로부터 맹아가 싹뻗었다고 하겠다. 屈平이 후대에 《시경》의 뜻을 본받아 <離騷>를 지었는데 六義를 겸하였지만 “賦”의 의미가 대부분이었다. 후에 宋玉이 계승하여 창작한 작품들이 함께 《楚辭》로 불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辭賦의 작가들은 모두 이 문체를 비조로 삼았다.<sup>20)</sup>

《문체명변》은 초사를 독립된 문체로 세우면서 《시경》과의 관계와 “兮”字를 구두로 사용하는 특징을 지적하고 굴원의 <이소>와 송옥이 지은 賦가 이후 辭賦體의 시조가 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초사의 문체의 특징과 성립 과정을 담아내었다.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는 문체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문학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문체명변》은 문체의 기원을 《시경》과 《서경》에 두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문체로부터 목적과 기능, 내용이 변화한 새로운 문체가 생겨났다고 여겼다. 문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므로 자연스럽게 古今의 구분이 생기고, 원래의 문체로부터 또 다른 문체가 생겨나므로 正變의 구별이 생기게 된다. 《문체명변》은 《正編》과 《附錄》에 나누어 실은 121종의 문체를 다시 正體와 變體, 古體와 今體, 혹은 俗體로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였다.

序題의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쓰인 예를 살펴보면, 문체의 본래의 기능과 내용과 형식을 충족시키는 모범적인 체식을 正體라고 하고, 문체의 내용과 형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變體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통시적인 각도에서 초기의 문체를 古體, 當今の 문체를 今體, 그리고 변화하여 민간에 통용되는 문체를 俗體라고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墓志銘”의 序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徐師曾, <楚辭>, “《風》,《雅》既亡,乃有楚狂<鳳兮>,孺子<滄浪>之歌,發乎情,止乎禮義,與詩人之六義不甚相遠,但其辭稍變《詩》之本體,而以‘兮’字爲讀,則夫楚聲固已萌芽於此矣.屈平後出,本《詩》義以爲騷,蓋兼六義而“賦”之義居多.厥後宋玉繼作,並號《楚辭》.自是辭賦之家,悉祖此體.”《文體明辨序說》, 100쪽.

그 문장에는 正體와 變體가 있다. 正體는 오직 事實을 서술하는 것이고 變體는 서사하는 중에 議論을 덧붙인 것이다. 순전히 “也”자를 사용하여 단락을 짓는 것이거나, 허구의 묘지문과 묘지명을 지으면서 서사로 시작하는 것 역시 變體이다. 대개 묘지명의 체식은 三言, 四言, 七言, 雜言, 散文 등이 있다. 그리고 가운데에 “兮”자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끝부분에 “兮”자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用韻은一句마다 韻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兩句마다 韻을 사용하거나 三句마다 韻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은 앞에 韻을 쓰고 뒤에는 韻이 없거나 앞에는 韻이 없다가 뒤에 韻을 쓰기도 한다. (중략) 대체로 각각의 문장 가운데 섞여져 나오므로 일일이 예를 열거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문장을 기록함으로써 구별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제목의 유형에 따라 正體와 變體를 구분하였고 또 職官, 處士, 婦人の 차례로 두었으며 銘의 문체와 운율을 간략히 기록하였다. 학자들이 헤아려주길 바란다.<sup>21)</sup>

《문장변체》의 墓志銘은 《문체명변》의 墓志, 墓記, 埋銘의 세 종류의 문체를 묶어서 새로운 문체로 세운 것이다. 서사증은 묘지명의 “正體는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唐宋 이후에 성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산문의 의론이 섞이게 되었으므로 “서사하는 가운데 의론을 덧붙인 것은 變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正體에서 묘지명이라는 문체의 본래적인 기능과 내용, 형식을 설명한 후, 이후에 생겨난 다양한 체식의 변화를 변체라고 정의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문장의 “제목”의 유형을 문체를 구별하는 우선적인 기준으로 두었으며 이와 함께 내용(職官, 處士, 婦人)과 형식(三言, 四言, 七言, 雜言, 散文, “兮”자 사용, 用韻) 등도 세밀히 고찰하여 문체를 구별한 것이다.

다시 “記”의 서체를 살펴보면, 서사증은 記 문체의 연원에 대해 소급하여 고찰하고 그 기능과 내용에 대해 정의를 내린 후, 시대에 따라 記의 내용과 형식에古今과 正變의 변화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문체가 다변화한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분류하여 三品과 三體의 하위분류를 두었다.

21) 徐師曾, <墓誌銘>, “其爲文則有正、變二體, 正體唯敘事實, 變體則因敘事而加議論焉。又有純用“也”字爲節段者, 有虛作志文而銘內始敘事者, 亦變體也。若夫銘之爲體, 則有三言、四言、七言、雜言、散文; 有中用“兮”字者, 有末用“兮”字者; 其用韻有一句用韻者, 有兩句用韻者, 有三句用韻者, 有前用韻而未無韻者, 有前無韻而未用韻者……皆雜出于各篇之中, 難以例列。故今錄文致辯, 但從題類, 仍分正、變, 稍以職官、處士、婦人爲次, 而銘體與韻則略序之, 庶學者有考云。”《文體明辨序說》 149-150쪽.

“《金石例》에서 “記라는 것은 紀事의 문장이다.”라고 하였다. (《尚書》의 <禹貢>과 <顧命>이 記의 원조이다. 그리고 記의 명칭은 《戴記》와 《學記》의 여러 편명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揚雄이 <蜀記>를 지은 적이 있으나 《文選》은 문류로 나열하지 않았고 劉勰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 漢魏 이전에는 작자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記가 성행한 것은 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문체는 敘事를 위주로 하는데 후대 사람들은 문체를 알지 못하여 議論을 섞어 놓았다. 그러므로 陳師道는 ‘韓退之가 記를 지을 때는 일을 기록했을 뿐이다. 지금의 記는 곧 論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아마도 느낀 바가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한퇴지의) <燕喜亭記>를 보면 이미 議論이 섞여 있고 구양수와 소식 이래로 의론은 더욱 많아졌다. 記體의 문장의 변화가 어찌 하루 아침저녁의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여러 記를 수록하고 三品으로 구별하였다. 碑陰의 예문 같은 것은 학자들이 고찰하고 취사선택한다면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는 물건에 의탁하여 寓意가 있게 한 것도 있고, 앞에 序를 두고 韻語로 記를 작성한 것도 있고, 篇末에 詩歌를 붙인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別體이다. 지금 三品の 끝에 병렬하였고 이것을 다시 三體로 나누어 그 변화가 드러나게 하였다. 제목은 혹은 ‘某記’라고 하고 혹은 ‘記某’라고 하였는데 작자가 명명하기 나름이다. 그 외에 글자 중에 墓碑記, 墳記, 塔記라고 한 것은 모두 墓誌의 조목 뒤에 붙였고 여기에 열거하지 않았다.”<sup>22)</sup>

三品이란 “正體”, “變體”, “變而不失其正”으로, “正體”에는 唐 韓愈의 <畫記>와 唐 柳宗元の <始得西山宴游記> 등의 작품이 실려 있고 “變體”의 작품에는 宋 范仲淹의 <岳陽樓記>와 宋 曾鞏의 <墨池記> 등이 실려 있다. “변화하였으나 정체를 잃지 않은(變而不失其正)” 작품에는 唐 韓愈의 <燕喜亭記>와 宋 歐陽脩의 <峴山亭記> 등이 실려 있다. 즉 서사와 의론이 적정하게 섞여 있는 작품들을 “변화하였으나 정체를 잃지 않은” 것으로 세분하여 품평한 것이다.

22) 徐師曾, <記>, “按《金石例》云: “記者, 紀事之文也.” <禹貢>, <顧命>, 乃記之祖; 而記之名, 則昉於《戴記》, 《學記》諸篇. 厥後揚雄作《蜀記》, 而《文選》不列其類, 劉勰不著其說, 則知漢魏以前, 作者尚少; 其盛自唐始也. 其文以敘事爲主, 後人不知其體, 故以議論雜之. 故陳師道云: ‘韓退之作記, 記其事耳; 今之記, 乃論也.’ 皆亦有感於此也. 然觀《燕喜亭記》已涉議論, 而歐, 蘇以下, 議論浸寢多, 則記體之變, 豈一朝一夕之故哉? 故今採錄諸記, 而以三品別之, 如碑陰之例, 欲使學者得有所考而去取焉, 庶乎不失其本意矣. 又有託物以寓意者, 有首之以序而以韻語爲記者, 有篇末系以詩歌者, 皆爲別體. 今並列於三品之末, 仍分三體, 庶得以盡其變云. 至其題或曰某記, 或曰記某, 則惟作者之所命焉. 此外宇有墓碑記, 墳記, 塔記, 則皆附於墓誌之條, 茲不復列.” 《文體明辨序說》, 145쪽.

또 “물건에 의탁하여 寓意가 있게 한 것(唐 王績의 <醉鄉記>), 앞에 序를 두고 韻語로 記를 작성한 것(唐 韓愈의 <汴州東西水門記并序>), 篇末에 詩歌를 붙인 것(宋 蘇洵의 <張益州畫像記>)과 같이 내용과 형식의 파괴가 심하지만 다른 문체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것을 別體로 다시 구분하였다. 그리고 別體로 분류한 작품들을 각각 다시금 三體(正體, 變體, 變而不失其正)로 품평하였으니 문체의 기능과 내용, 형식에 대해 망라하려고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墓碑記, 墳記, 塔記와 같이 내용과 형식의 변화뿐 아니라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별도의 문체로 볼 만큼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문장들은 별도로 “墓志”의 문체로 귀속시켰다.

이상의 서제에서 보았듯이 《문체명변》은 121개로 나눈 문체의 아래에 다시 형식, 혹은 내용에 따라 하부 분류를 해놓았다. 예를 들어 “古歌謠辭”는 하부 문체로 “歌, 謠, 謳, 誦, 詩, 辭, 諺”의 7종류를 수록했고, “賦”는 하부 문체로 “古賦, 律賦, 文賦, 律賦”의 4종류로 나누어 놓았다. 또 “奏疏”의 하부 문체는 “奏, 奏疏, 奏對, 奏啓, 奏狀, 奏筭, 封事, 彈事”의 8종류로 분류되었다. “論”은 “理論, 政論, 經論, 史論(評議와 述贊의 二體가 있음), 文論, 諷論, 寓論, 設論”의 8품으로 나누었으며, “判”은 “科罪, 評允, 辯雪, 番異, 判罷, 判留, 駁正, 駁審, 未減, 案寢, 案候, 褒嘉”의 12종류로 다시 나뉜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문체명변》에서 언급된 문체는 실제로 목록에서 밝혀진 숫자보다 훨씬 많아진다. 서사증은 연원과 기능,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여 문체를 분류하였고, 같은 문체 안에서도 작품들을 세심히 분류하고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여 다시 하부 문체를 둬으로써 문체의 다양한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비록 그 중에는 “品”과 “體”의 구별이 엄정하지 못하다든지 하는 단점은 있으나 문체의 연원과 기능, 내용, 형식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세밀한 분류를 통해 문체의 특성을 귀납하고, 또 문체의 여러 갈래를 연역해낸 방법은 중국 문체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 3.2 新文體의 분류와 비평

《문체명변》의 문체의 분류와 序題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문장변체》를 기초로 삼은 것이지만, 서사증은 기존의 문체를 세심하게 분류하여 독립적인 새로운 문체로 세우고 序題에서 문체의 연원과 변천, 기능과 형식을 설명하였다. 경우에 따라 예전부터 있었으나 주목받지 못하였던 문체를 별도의 문체로 새롭게 세우기도 하였고, 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문체를 독립적인 문체로 세워서 序題를 통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원래 《문장변체》에서 다른 문체에 귀속되었으나 《문체명변》에서 독립된 문체로 분류된 것으로는, 四言古詩(古詩), 五言古詩(古詩), 七言古詩(古詩), 雜言古詩(古詩), 楚辭(賦), 誄(誄辭·哀辭), 哀辭(誄辭·哀辭), 制(制·誥), 誥(制·誥), 評(贊), 碑陰文(碑), 說(說·解), 解(說·解), 小序(序), 引(序), 弔文(祭文) 등이 있다. 괄호 안에 표기된 문체는 원래 《문장변체》에서 귀속되었던 문체를 표시한 것이다.

몇 가지 문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誄辭와 哀辭는 원래 《문장변체》에서 “誄辭·哀辭”로 함께 묶여 있었으나 《문체명변》에서 각각 독립된 문체가 되었다. 《문장변체》의 “퇴사·애사”의 序題에서는, “한유가 구양침을 위해 지었던 문장이나 유종원이 여온을 위해 지었던 문장들은 혹은 誄辭라고 하고 혹은 哀辭라고 하여 그 명칭이 같지 않았다. 송대의 증공이나 소식 등이 지은 문장들은 모두 哀辭라고 칭하였다.”고<sup>23)</sup> 하였다. 그리고 그 기원은 唐代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문체명변》은 “퇴사”와 “애사”를 각각 독립된 문체로 세웠고, 애사에 대해 漢代부터 시작된 문체라고 하였다.

옛날에 반고가 처음으로 <梁氏哀辭>를 지었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따랐으며 대대로 작자들이 있었다. (중략) 그 문장은 대부분 운율이 있고 4언의 離騷

23) 吳訥, <誄辭·哀辭類>, “韓退之之於歐陽詹, 柳子厚之於呂溫, 則或曰誄辭, 或曰哀辭, 而名不同. 迨宋南豐, 東坡諸老所作, 則總謂之哀辭焉.” 吳訥 지, 于北山 교점, 《文章辨體序說》, 53쪽.

體인데 뜻이 가는 대로 쓰는 것이 誄體와 다르다. 오늘이 이 문체들(哀辭와 誄辭)을 병기한 것은 아마도 자세히 살피지 않은 때문인지?<sup>24)</sup>

서사증은 이와 같이 “哀辭”의 문체는 한대의 班固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설명하고 그 문체의 특징은 4언체의 운문으로서 離騷의 형식을 따른다고 밝힘으로써 “哀辭”와 “誄辭”를 별도의 문체로 명확히 구분하였다. 다른 예로 《문체명변》에서 별도의 문체로 구별한 “誥”의 序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나라에서도 王의 말은 誥라고 칭하지 않았다. 송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誥를 사용하여) 관리에게 명을 내리고 大臣을 追贈하고 죄인을 貶謫시키고 또 祖父나 부인을 贈封하게 되었다. 대개 조정에서 선포하지 않는 명령에 모두 (이 문장이) 사용되었으므로 그 작품도 더욱 많아졌다. 그러나 구양수나 소식, 증공, 왕안석의 여러 문집들을 고찰해보면 통칭하여 制라고 불렀으며 內制와 外制의 구분이 있을 뿐이다. 誥는 실제로 그 중에 섞여있고 다르게 표기하여 구별하지 않았다. 아마도 당시에 王의 언사를 담당한 관리를 兩制라고 불렀는데, 制文을 맡은 한 명이 여러 詔命과 七 등을 총괄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세분한다면 制와 誥는 역시 구별된다. 《文鑑》의 분류가 아주 명확하며 서로 혼동되지 않으므로 두 문체의 차이를 구별하기에 족하다. 지금 그 예에 따라서 나열하였다. 다만 唐나라 때는 아직 誥라는 명칭이 없었으므로 여전히 制라고 칭하였다. 그 문사에는 散文과 儷語가 있으니 古體와 俗體의 두 가지로 나뉜 것이다.<sup>25)</sup>

“誥”는 《문장변체》에서는 “制·誥”로 함께 묶여 있었으나 《문체명변》은 制와 誥를 각각 독립된 문체로 세웠다. 制와 誥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공문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制는 조정에서 반포되는 명령이고, 誥는 조정이 아닌

24) 徐師曾, <哀辭>, “昔漢班固初作<梁氏哀辭>, 後人因之, 代有撰者. (중략)其文皆用韻語, 而四言騷體, 惟意所之, 則與誄體異矣. 吳訥乃並而列之, 殆不審之故歟?” 《文體明辨序說》, 153쪽.

25) 徐師曾, <誥>, “唐世王言, 亦不稱誥. 至宋, 始以命庶官, 而追贈大臣, 貶謫有罪, 贈封其祖父妻室, 凡不宣于庭者, 皆用之, 故所作尤多. 然考歐·蘇·曾·王諸集, 通謂之制, 故稱內制, 外制, 而誥實雜於其中, 不復識別. 蓋當時王言之司, 謂之兩制, 是制之一名, 統諸詔命七者而言. 若細分之, 則制與誥亦自有別, 故《文鑑》分類甚明, 不相混雜, 足以辯二體之異. 今倣其例而列之. 唯唐無誥名, 故仍稱制. 其詞有散文, 有儷語, 則分爲古·俗二體云.” 《文體明辨序說》, 115쪽.

곳에서 내려지는 명령이다. 두 문체는 서로 다르지만 “唐나라때는 아직 誥라는 명칭이 없었으므로 여전히 制라고 칭하였고” 宋代에 이르러 “조정에서 선포되지 않는 명령들은 모두 誥라고 한다”라는 구별이 생겼다. 그러나 송대 사람들도 역시 습관적으로 “制”라고 통칭하였으므로 誥의 문장이 制의 문체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서사증은 이러한 誥와 制의 문체를 분별하여 서로 다른 문체로 독립시켰다.

《문체명변》은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문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문체로 세우고 序題를 작성하여 설명하였다. 문체의 내용과 형식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을 變體라고 하였지만, 그중에서 내용과 형식, 그리고 중요한 목적과 기능까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별도의 문체로 볼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sup>26)</sup> 唐代 이후부터는 唐詩의 성행과 古文運動 등의 문학 풍조로 인해 널리 성행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새로운 문체가 많았다. 예를 들어 “集句詩”, “和韻詩”의 서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集句詩는 옛날 시구를 잡다하게 모아서 시를 짓는 것이다. 쯤 나라 이래로 있었던 것인데, 宋 王安石은 특히 집구시를 잘 지었다. 반드시 박학하여 잘 기억하고 (시구들을) 한데 녹여 관통하도록 해야 하니,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아야 훌륭한 시이다. 만약 억지로 끌어와 합쳐놓아서 그 의미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기에 부족하다. 지금 몇 수를 채록하여 작품으로 나열하였다.<sup>27)</sup>

和韻詩는 세 가지 체식이 있다. 첫째는 依韻으로, 같은 韻을 사용하되 반드시

26) 서사증이 기존의 문체를 세분하여 독립적인 새로운 문체로 세운 것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바로 樂府에서 近體歌行의 문체를 분리한 것이다. 오늘날의 《문장변체》는 송대 郭茂倩의 《樂府詩集》의 성과를 기반으로 樂府詩를 시가에 포함시켰고, 시가를 古歌謠辭, 古賦, 樂府, 古詩의 문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서사증은 그로부터 진일보하여 古賦에서 楚辭體를 구별하여 독립시켰고 또 古詩에서 歌行體를 구별하여 독립된 문체로 세웠다. 오늘날과 서사증은 명대의 악부시와 가행의 연구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과 서사증의 樂府詩와 歌行에 대한 연구 성과는 李樹軍, <《文章辨體》與《文體明辨》의 歌行與樂府研究> 참조.

27) 徐師曾, <集句詩>, “按集句詩者, 雜集古句以成詩也. 自晉以來有之, 至宋王安石尤長於此. 蓋必博學強識, 融會貫通, 如出一手, 然後爲工. 若牽合傳會, 意不相貫, 則不足以語此矣. 今採數首列于篇.” 《文體明辨序說》, 111쪽.

그 글자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次韻으로, 원래의 韻에 맞추고 선후의 순서까지 모두 따른다. 셋째는 用韻으로, 원래의 韻에 맞추지만 선후의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 예를 들어 唐 韓愈의 《昌黎集》에 있는 <陸渾山火和皇甫湜用其韻>이 그것이다. 옛 사람들이 화답할 때는 보내준 뜻에 답하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운율에 속박되지 않았다. (중략) 中唐 이후에 元稹, 白居易, 皮日休, 陸龜蒙 등이 서로 唱和하였고 이때부터 이러한 문체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작품에 못 미치니, 嚴羽가 “화운은 다른 사람의 시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다”라고 말할 의미가 이것이다. 지금 대략 次韻詩 2편을 수록하여 하나의 문체로 갖추게 하고 또 그 논의를 수록하여 학자들이 잘못을 본받지 않게 하려 한다.<sup>28)</sup>

集句詩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미 있었는데 특히 왕안석이 집구시의 창작에 뛰어나며 그 문체의 특징으로는 여러 시에서 모은 시구가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이 의미가 관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和韻詩 역시 唐代 이후에 성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다만 보내준 시에 답하는 의미로 쓰이던 것이 점차 운율에 맞추어 화답하는 문풍이 생겨나 依韻, 次韻, 用韻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문체명변》의 《정집》에는 古歌謠辭, 四言古詩, 楚辭, 賦, 樂府 외에 五言古詩, 七言古詩, 雜言古詩, 近體歌行, 近體律詩, 排律詩, 絕句詩, 六言詩, 和韻詩, 聯句詩, 集句詩 등으로 시가의 체식이 세분되었으며 《부록》에도 雜句詩, 雜言詩, 雜體詩, 雜韻詩, 雜數詩, 雜名詩, 離合詩, 詼諧詩와 같이 당대에 성행한 절구와 율시와 더불어 함께 발전한 다양한 詩體들을 분류하고 귀납하여 문체학적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어 雜體詩 아래에도 拗體, 蜂腰體, 斷絃體, 隔句體, 偷春體, 首尾吟體, 盤中體, 迴文體, 仄起體, 疊字體, 句用字體, 藁砧體, 兩頭織體, 三婦艷體, 五雜粗體, 五仄體, 四聲體, 雙聲疊韻體, 問答體의 하부 분류를 망

28) 徐師曾, <和韻詩>, “按和韻詩有三體: 一曰依韻, 謂同在一韻中而不必用其字也; 二曰次韻, 謂和其原韻而先後次第皆因之也; 三曰用韻, 謂有其韻而先後不必次也。如唐韓愈《昌黎集》有<陸渾山火和皇甫湜用其韻>是已。古人賡和, 答其來意而已, 初不爲韻所縛。(중략) 中唐以還, 元(稹)·白(居易)·皮(日休)·陸(龜蒙)更相唱和, 由是此體始盛, 然皆不及他作, 嚴羽所謂“和韻最害人詩”者此也。今略採次韻詩二篇, 以備一體, 且著其說, 使學者勿效尤云。”《文體明辨序說》, 109-110쪽.

라하였으므로 시가의 다양한 變體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시가뿐 아니라 문장에서도 당대와 송대 고문운동의 성행과 더불어 다양한 기능과 내용, 형식을 갖추게 된 새로운 문체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문체로 세우고 序題를 작성하여 설명하였다. “御札”과 “公移”의 서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字書에 따르면, “札은 짧은 편지이다”라고 하였다. 天子의 서찰을 御札이라고 부르는 것은 높임말이다. 옛날에는 이런 문체가 없었는데 宋代 이후에 생겨났다. 그 문장이 詞臣의 손에서 창작되므로 문체가 서로 다르다. 대부분 대구를 사용하니, 勅의 變體라고 하겠다. 지금 몇 수를 채록하여 편목에 나열하였다.<sup>29)</sup>

公移는 여러 부서에서 서로 간에 보내는 글을 말한다. 그 명칭은 하나가 아니다. 唐代에 하부에서 상부로 글을 올리는 제도는 여섯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 두 번째는 狀인데 百官이 상사에게 쓰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辭인데 庶人의 말을 辭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는 牒인데 品階 이상의 공문은 모두 牒이라 칭하였다. 여러 부서에서 자체로 혹은 서로 간에 질문을 하는 내용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關은 사안을 알리는 것이다. 둘째, 刺는 (잘못을) 직접 지적하는 것이다. 셋째, 移는 타부서에 일을 이임하는 것이다. (중략) 지금(명대)의 제도는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 보내는 것을 照會, 箭付, 案驗, 帖, 故牒 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부에서 상부로 상달하는 것을 咨呈, 案呈, 呈, 牒呈, 申이라고 부른다. 여러 부서에서 서로 보내는 글을 咨, 牒, 關 이라고 부른다. 상하 간에 通用되는 것은 揭帖이다. 대략 前代의 제도를 따라서 줄이거나 보충한 것이다.<sup>30)</sup>

御札은 송대 이후에 천자가 서찰을 내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긴 문체이며 勅의 변체에서 파생된 문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公移는 이전부터 조정

29) 徐師曾, <御札>, “按字書, “札, 小簡也”天子之札稱御札, 尊之也. 古無此體, 至宋而後有之. 其文出於詞臣之手, 而體亦不同. 大抵多用麗語, 蓋勅之變體也. 今採數首列於篇.”《文體明辨序說》, 117쪽.

30) 徐師曾, <公移>, “按公移者, 諸司相移之詞也. 其名不一, 唐世, 凡下達上, 其制有六. 其二曰狀, 百官於其長亦爲之. 其五曰辭, 庶人言爲辭. 其六曰牒, 有品已上文皆稱牒. 諸司自相質問, 其義有三. 一曰關, 謂關通其事也. 二曰刺, 謂刺舉之也. 三曰移, 謂移其事於他司也. (중략) 今制, 上達下者曰照會, 曰箭付, 曰案驗, 曰帖, 曰故牒. 下達上者曰咨呈, 曰案呈, 曰呈, 曰牒呈, 曰申. 諸司相移者曰咨, 曰牒, 曰關. 上下通用者曰揭帖. 大略因前代之制而損益之耳.”《文體明辨序說》, 127쪽.

의 부서 사이에 통행되던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문서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상부에서 하부로 전달하는 것과 하부에서 상부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등급의 여러 부서 사이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주고받는 다양한 공문들의 명칭이 복잡하고 다단한데, 이러한 것들을 개괄하여 公移라고 통칭한 것은 또한 《문체명변》이 별도로 독립시킨 문체라고 볼 수 있겠다.

《문체명변》이 唐代 이후에 산문의 문체가 성행한 상황을 반영하여 독립된 문체로 꼽은 것은, 이외에도 敕文, 鐵券文, 書記, 約, 解, 釋, 小序, 引, 題跋, 敕文, 鐵券文, 志, 紀事, 題名, 字說, 祝文, 韻辭 등이 있다. 그 밖에 새로운 문체로 분류되어 《부록》에 수록된 것으로 玉牒文, 符命, 表本, 口宣, 宣答, 致辭, 祝辭, 貼子詞, 上梁文, 樂語, 右語, 道場榜, 道場疏, 表, 青詞, 募緣疏, 法堂疏 등이 있는데 《부록》에 수록된 문체들은 주로 俗文學에 속하므로 이에 관해서 아래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 3.3 俗文學의 문체 분류와 비평

《문체명변》은 《문장변체》와 비교해 훨씬 더 많은 수량의 俗文學의 문체들이 수록되었다. 오늘(1372~1457)은 洪熙부터 天順 연간까지 명대 전기에 활동하였는데, 이 시기는 아직 양명학이 흥기하지 않았으며 속문학도 크게 성행하지 않았던 때이다. 오늘은 전통적인 문학비평론을 고수하였고 俗文學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극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보다 약 120년 뒤에 생활하였던 서사증(1517~1580)의 시대에는 속문학이 갈수록 번영하였고 점차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문체명변서>에서는 속문체에 대해 “본래 우리 유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알면서도 써놓지 않는다면 세상일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또 마음속으로 구별하지 못하면서 밖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사람들을 속인다면 역시 유학자의 수치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기록하여 붙였다.”라고<sup>31)</sup> 하였다. 서

사증 역시 전통적인 문학관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이미 俗文學이 갈수록 번성하는 문학적 추세를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명대 중기까지 발전한 다양한 속문학을 문체론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하였고, 결국 속문체들을 문체의 범주에 포함시켜 비평하고 《부록》에 수록하였다.

《문체명변》의 《부록》 중에는 “동네 거리와 집안사람들의 일이며 배우들의 격의 없는 이야기(閭巷家人之事, 俳優方外之語)”인 俗文體가 대량으로 수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당대에 생겨나 송대에 크게 번성한 민간 가요인 “詩餘”, 즉 詞의 정리에 큰 부분을 할애한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송대 이후의 사회와 민간에서 유행한 각종 민간의 행사와 불교와 도교와 같은 종교적 성격의 속문체, 예를 들어 致辭, 祝辭, 貼子辭, 上梁文, 樂語, 右語, 道場榜, 道場疏, 表, 青詞, 募緣疏, 法堂疏와 같은 문체들이 포함된 것도 《문장변체》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문체명변》의 《부록》은 모두 14권이고 26종의 문체를 실었는데 그 중에 제3권부터 제11권까지 9권에 걸쳐 모두 詩餘, 즉 詞가 수록되어 있어서, 詩餘가 《부록》 중에서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詩餘”의 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보기에 詩餘는 古樂府에서 독립된 유파이며 후대 歌曲의 濫觴이다. 樂府가 흩어져 없어지고 聲律이 어긋나고 빠진 부분이 있게 되었을 때 唐 李白이 처음 <清平調>, <憶秦娥>, <菩薩蠻> 등의 詞를 지었고 당시 사람들이 이를 본받았다. 그 후에 行衛尉少卿 趙崇祚가 《花間集》으로 5백 闋의 詞를 묶어내었으니 이것이 근래에 소리에 맞추어 填詞하는 작품의 시초가 되었으며, 宋初에 이르러 작품의 창작이 점점 많아졌다. 周邦彥이 大晟樂府를 이끌면서 聲調를 가지런하고 적합하게 하여 12월에 각각 篇目이 생겼다. 柳永이 (노래를) 200여 調까지 늘리자, 일시에 문사들이 그를 따라 창작하여 많은 것은 (詞牌가) 60여 종에 이르렀다. 가히 (詞의) 전성기라 할 만했으니 악부로부터는 더욱 멀어졌다.(중략) 내가 보니, 秦觀의 詞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먼 곳의 여인들이라도 (작품을) 알고 서로 이야기하며 심지어 좋아해 죽을 정도라고 한다. 사람을 감동시켜

31) 徐師曾, <文體明辨序>, “至於附錄, 則閭巷家人之事, 俳優方外之語, 本吾儒所不道, 然知而不作, 乃有辭於世. 若乃內不能辯, 而外爲大言以欺人, 則儒者之恥也.” 《文體明辨序說》, 73쪽.

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면 俗體라고 해서 (쓸모없다고) 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자가 많아지자 그 중에는 음절에 어두운 사람이 없지 않았다. 蘇軾과 같은 사람도 “鐵絀板을 들고 ‘큰 강이 동쪽으로 흐르네(大江東去)’라고 노래한다.”라는 말로 조롱을 당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후로부터 詩餘는 더 유행하지 않았고 金元 사람들은 套數를 짓기 시작하였다. 曲에는 南과 北의 두 가지 체식과 九宮, 三調가 있으니 악부로부터는 더욱 멀어졌다. 근래에 何良俊은 ‘詩가 없어지고 樂府가 생겨났고, 樂府가 사라진 후 詩餘가 나타났으며, 詩餘가 쓰이지 않자 歌曲이 있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진실로 지체로운 말이다!

요컨대 樂府와 詩餘는 모두 管絃의 음악을 덧입는 것인데, 다만 樂府는 순박하고 끈게 발산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여기고 詩餘는 예쁘고 고우며 유창한 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 이것이 서로 다른 점이다.<sup>32)</sup>

서사증은 詩餘, 즉 詞가 古樂府에서 비롯되었으며 元代的 歌曲의 濫觴이 되었다고 그 연원을 밝혔다. 그리고 詞는 趙崇祚가 《花間集》으로 500수의 詞를 묶어내면서 填詞의 작풍이 자리 잡았음과, 周邦彥과 柳永이 詞의 聲과 調를 새롭게 정리해내고 많이 창작함으로써 詞의 작품 수가 더욱 많아졌음을 설명하였다. 이후에 蘇軾과 같은 문인들이 음악과 상관없이 文人詞를 지으면서 詞가 쇠퇴하였던 상황과, 金元代에는 다시 南曲과 北曲과 같은 가곡이 유행하게 된 정황도 서술하였다. 詩餘의 연원에 대한 설명은 詞에 대한 간략한 문학사라고 할 만큼 문체의 연원과 계승관계,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집과 주요한 작가들의 功過를 적절하게 지적하였으니, 서사증이 詩餘의 문체의 연원과 변천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詩餘의 문체적 특징

32) 徐師曾, <詩餘>, “按詩餘者, 古樂府之流別, 而後世歌曲之濫觴也. 蓋自樂府散亡, 聲律乖闕, 唐李白氏始作<清平調>, <憶秦娥>, <菩薩蠻>諸詞, 時因效之. 厥後行衛尉少卿趙崇祚輯爲《花間集》, 凡五百闋, 此近代倚聲填詞之祖也. 宋初創製漸多, 至周待制(邦彥)領大晟樂府, 比切聲調, 十二律各有篇目, 柳屯田(永)增至二百餘調, 一時文士, 復相擬作, 富至六十餘種, 可謂極盛, 然去樂府遠矣.(중략) 然觀秦少游(觀)之詞, 傳播人間, 雖遠方女子, 亦知瞻炙, 至有好奇而至死者, 則其感人, 因可想見, 殆不可謂俗體而廢之也. 第作者既多, 中間不無昧於音節, 如蘇長公(軾)者, 人猶以“鐵絀板唱<大江東去>”譏之, 他復何言哉? 由是詩餘復不行, 而金元人始爲套數. 曲有南北二體, 九宮三調, 其去樂府, 抑又遠矣. 近時何良俊以謂詩亡而後有樂府, 樂府闕而後有詩餘, 詩餘廢而後有歌曲, 眞知言哉! 要之, 樂府詩餘, 同被管絃, 特樂府以嚴選揚厲爲工, 詩餘以婉麗流暢爲美, 此其不同耳.” 《文體明辨序說》, 164쪽.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詩餘를 填詞라고 일컫는 것은, 즉 성조에 정해진 격식이 있고 글자에 정해진 숫자가 있고 운율에 정해진 聲韻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므로 지금 여러 詞調를 수록하여 다만 平仄으로만 詞譜를 만들어 앞에 나열하였고 그 뒤에 詞를 기록하였다. 만약 구절에 長短이 있으면 다시 각 體에 따라 구별하였으니 可平, 可仄, 亦通의 3句로 하였다. 다만 수록한 것이 다만 320여 調뿐이니 未盡한 듯하다. 이로써 備忘하여 참고하기를 바랄 뿐이다. 詞에 대해 논하자면 婉約한 작품도 있고 豪放한 작품도 있다. 婉約한 작품은 문사와 정조가 깊고 그윽하고, 호방한 작품은 기상이 넓고 크다. 각자 그 바탕을 따르고 있으나 詞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마땅히 婉約함을 正體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작품은 지극히 정채롭고 훌륭하더라도 결국 本色과는 어긋나므로 기록해두고 볼 것은 아니다.<sup>33)</sup>

서사증은 詩餘의 문체 특징이 독특한 창작 방법, 즉 가사를 채우는 것(填詞)으로부터 비롯됨을 말하였고, 정해진 격식의 聲調와 정해진 글자 수, 그리고 정해진 聲韻이 있기 때문에 음악과 성조, 운율 역시 詩餘를 이루는 문체의 특징으로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므로 詩餘의 작품을 수록할 때 詞調와 함께 平仄으로 표시한 詞譜를 함께 두었다.

비교해보면, 《문장변체》는 詞의 문체를 《외집》 5권의 말미에 붙은 近代 曲詞이라는 문체에 포함시켜서 간단히 언급하였고 또 <竹枝詞>, <柳枝詞> 등 24개의 詞牌만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문체명변》에 수록된 詞牌는 330개에 달하며, 이 숫자는 대략 현존하는 詞牌의 1/3에 해당한다.<sup>34)</sup> 이로써 보건대 서사증이 詩餘, 즉 詞의 문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꽤 심도 있게 연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명변》이 속문학인 詞를 전면적으로

33) 徐師曾, <詩餘>, “然詩餘謂之填詞, 則調有定格, 字有定數, 韻有定聲. (중략) 故今採諸調, 直以平仄作譜, 列之於前, 而錄詞其後. 若句有長短, 復以各體別之, 其可平, 可仄, 亦通三句. 但所錄僅三百二十餘調, 似爲未盡, 然以備考, 則庶幾矣. 至論其詞, 則有婉約者, 有豪放者. 婉約者欲其辭情醞藉, 豪放者欲其氣象恢弘, 蓋雖各因其質, 而詞貴感人, 要當以婉約爲正. 否則雖極精工, 終乖本色, 非有識之所取也. 學者詳之.” 《文體明辨序說》, 165쪽.

34) 仲曉婷, 《徐師曾〈文體明辨〉研究》, 11쪽.

다른 것은, 당시의 시대사조와 속문학의 발전을 긍정하는 서사증의 진보적인 문학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 《문체명변》은 송대 이후 민간에서 유행한 각종 행사에서 쓰이는 속문체들을 수록하였는데 예를 들어 “貼子詞”, “上梁文”, “樂語”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貼子詞는宋代 궁중의 문과 벽에 붙여 吉祥을 기원하던 詞이고, 上梁文은 건축 공사에서 대들보를 올릴 때 친지들이 와서 축하하고 공사의 우두머리가 복을 기원하는 문장이다. 樂語는 조정에서 연회를 베풀 때 배우나 歌妓가 부르던 노래를 가리킨다. 아래에서 “貼子詞”와 “上梁文”의 서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貼子詞는 宮中에서 붙이는 詞를 말한다. 옛날에는 이러한 문체가 없으므로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宋나라 때 매번 올령의 절기 때마다 詞臣에게 명하여 詞를 지어 진상하게 하였고 그것을 여러 누각의 문과 벽에 붙여서 吉祥을 맞도록 하였다. 그 詞를 보면 대개 5, 7언의 絕句詩이다. 각 宮마다 수량이 다른데, 그 宮의 넓이로 인해 그런 것이기도 하고 혹은 수량으로 등급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자질구레한 풍속이므로 詞臣을 번거롭게 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宋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숭상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노래가 지나치게 성하였던 시기의 일 단면일 것이다! 지금 약간 채록하여 한 문체로 갖추어 놓았다.<sup>35)</sup>

上梁文은 공사의 우두머리가 대들보를 올릴 때 읊는 이야기이다. 세속에서 宮室을 축조할 때는 반드시 길일을 택하여 들보를 올리는데, 친지와 빈객들이 국수를 싸가지고 오거나 다른 물건들을 같이 가져와서 축하를 하며 장인들을 위로한다. 장인들의 우두머리는 국수를 대들보로 던지고서 이 문장을 읽고 축복을 빈다. 그 문장은 앞과 뒤가 모두 대구로 되어 있고 중간에 6언시를 나열하기도 하는데 시어는 각 3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써 사방과 상하의 신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니 대개 세속의 예법이다. 지금 몇 편을 수록하여 한 문체로 갖추었다.<sup>36)</sup>

35) 徐師曾, <貼子詞>, “按貼子詞者, 宮中黏貼之詞也. 古無此體, 不知起於何時. 第見宋時每遇令節, 則命詞臣撰詞以進, 而黏諸閣中之戶壁, 以迎吉祥. 觀其詞乃五七言絕句詩, 而各宮多寡不同, 蓋視其宮之廣狹而爲之, 抑亦以多寡爲等差也. 然此乃時俗鄙事, 似不足以煩詞臣, 而宋人尚之, 豈所謂聲容過盛之一端歟? 今姑採錄, 以備一體”《文體明辨序說》, 168쪽.

36) 徐師曾, <上梁文>, “按上梁文者, 工師上梁之致語也. 世俗營構宮室, 必擇吉上梁. 親覲妻媿, 雜他物稱慶, 而因以搞匠人. 於是匠人之長, 以麵拋梁而誦此文以祝之. 其文首尾皆用儷語, 而

《문체명변》은 민간의 속문학의 문체 외에 불교와 도교에서 쓰이는 종교적 문체에 대해서도 문체론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망라하였다. 불교류와 도가류의 속문체에 해당하는 “道場榜”, “道場疏”, “靑詞”, “募緣疏”, “法堂疏” 등은 모두 《문장변체》에는 실리지 않았던 것들이다. 道場榜은 불가와 도가에서 道場을 건축하고 榜文을 써놓는 것이다. 道場疏는 불가와 도가에서 경축하거나 기원하는 글로서, 생일을 경축하는 글을 生辰疏라고 하고 기원하는 글을 功德疏라고 한다. 靑詞는 方士가 과오를 참회하는 말이다. 募緣疏는 불교에서 사람들의 기부나 도움을 얻기 위해 쓰는 글이다. 法堂疏는 불교에서 長老나 主持가 쓰는 말이다. 이 가운데 靑詞와 法堂疏의 서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靑詞는 方士가 과오를 참회하는 말이다. (그 내용은) 혹은 복을 구하거나 혹은 망자를 위해 경전을 읽어주기도 하는데 오직 도가에서만 사용한다. 이것을 密詞라고도 하는데 불교와 도교에서 통용된다. 문사는 대구를 사용하며 여러 문집에 실려 있다. 특히 《事文類聚》에 실린 것이 더욱 많다.<sup>37)</sup>

法堂疏라는 것은 長老나 主持가 쓰는 말이다. 용도는 세 가지가 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인도하여 칭하는 것, 장차 떠나려 할 때 배웅하는 것, 도착한 후에 堂을 여는 것이다. 그 일은 진중하고 문체는 존엄하므로 고승이 아니면 이 언사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도 여기에 수록한 것은, 세상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 문체도 버려야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문장에 古體와 今體가 있으므로 각각 나열하였다.<sup>38)</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사증은 민간에서 창작된 속문학의 작품이라도 문체론의 관점에서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詩餘를 비롯하여 上梁文이

中陳六詩，詩各三句，以按四方上下，蓋俗禮也。今錄數篇，以備一體。”《文體明辨序說》，169쪽.

37) 徐師曾，〈靑詞〉，“按陳繹曾云，‘靑詞者，方士懺過之詞也，或以祈福，或以薦亡，唯道家用之，其謂密詞，則釋道通用矣。詞用儷語，諸集皆有，而《事文類聚》所載尤多。’”《文體明辨序說》，172쪽.

38) 徐師曾，〈法堂疏〉，“按法堂疏者，長老主持之詞也。其用有三；未至用以啓請，將行用以祖送，既至用以開堂。其事重，其體尊，非夫高僧，恐不足以當此。然猶錄之者，不可謂世無其人而廢此一體也。文有古今體，今各列之。”《文體明辨序說》，173쪽.

나 樂語와 같이 당시에 전해지는 많은 속문체를 망라하여 《문체명변》의 서제가 완전한 文體學史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게 하였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체명변》에 수록되지 못하고 빠진 문체가 있거나 혹은 문체의 분류가 적절치 않은 한계가 보일 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문체명변》은 이전의 시문선집의 범주를 뛰어 넘어 명대에 전해지는 수많은 문체들을 총망라하였고 일정한 기준으로 배열하였으며, 각 문체의 序題에는 문체의 연원과 변천, 기능과 형식 등 문학적 특징들을 세세하게 나열하여 문체학사의 큰 발전을 이루었다.

#### 4. 나가는 말

《문체명변》은 문체를 121 종으로 세분하였고, 유가의 경전에서 유래되어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문체는 물론이고 당대와 송대 이후에 출현한 실용문과 속문학의 문체들까지 모두 문체론의 범주에 넣어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문체명변》에 수록된 문체들과 함께 선록된 작품들은 명대 중기까지 발전한 다양한 문체의 양상을 망라하여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체를 설명한 序題는 문학의 역사적 변화를 인정하면서 문체의古今과 正變, 雅俗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명대의 문체론이 이론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체계화되었음을 반영하였다. 《문체명변》은 다양한 시문들을 수록하고 있는 점에서 일견 시문선집처럼 보이지만, 문체의 구별〔辨體〕을 통해 더욱 세밀하게 문체론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체 비평에 방점을 둔 문체론 저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서사증의 《문체명변》에 대한 清代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았다. 《四庫提要》는 《문체명변》의 분류가 잡다하고 기준이 모호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사고전서》에서 목록만 기재해두는 “四庫全書存目”에 《문장

변체》와 함께 편입시켰다. 《사고제요》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머리에 있는 古歌謠詞는 모두 漢 이전의 작품인데 진위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李賀의 시를 그 중에 끼워 넣었는데, 어찌 東京 이후에 오직 이 시만 옛 문체를 좇았겠는가. 그 다음의 四言詩는 分章한 것을 正體로 여기고 分章하지 않은 것을 變體로 여겼다. 그 다음의 楚辭는 古賦의 원조, 文賦의 원조, 그리고 《楚辭》를 모의한 작품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 다음의 賦는 古賦, 俳賦, 文賦, 律賦의 네 가지로 나누었으며 그 중에 正體이지만 그 사이에 俳賦의 형식이 나온다거나, 變體인데 점차 文賦로 흘러가는 두 가지 變體의 예가 나왔다. 그 다음의 樂府는 모두 郭茂倩을 베끼고 《宋史·樂志》를 조금 보태었으며 선록하지 않은 것들은 제목을 남겨두었다. 그 다음의 詩는 《文選》의 門類를 취하고 조금 보태어서 晚唐까지 기록하고 그쳤으며 宋 이후로는 한 글자도 없다. 그 다음의 詔, 誥와 여러 문장들은 모두 古體와 俗體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 다음의 書, 表 등은 古體 외에 唐體와 宋體를 덧붙였다. 碑는 正體와 變體 외에 다시 別體를 붙였다. 심지어 墓志銘에서는 글자 수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그 나머지도 갑자기 나누었다가 갑자기 합쳐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져서 더 이상 체례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이른바 영킨 실타래를 풀러다가 더욱 엉키게 된 꼴이다.<sup>39)</sup>

《사고제요》는 《문체명변》의 분류가 지나치게 세밀하다보니 분류가 잡다하고 기준이 혼란하여 오히려 체계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문체명변》이 문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체명변》은 선진 시기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발전과 변천을 거듭해 온 다양한 문체의 역사적 연변과 특징을 파악하고 문체를 구별〔辨體〕하는 것이 주요한 편찬 동기였다. 그러므로 수많은

39) <文體明辨提要>, “首以古歌謠詞, 皆漢以前作, 眞僞不辨, 而以李賀一詩參其間, 豈東京而後, 只此一詩追古耶. 次四言詩, 以分章者爲正體, 以不分章者爲變體. 次《楚辭》, 分古賦之祖, 文賦之祖, 摹擬《楚辭》三例. 次賦, 分古賦、俳賦、文賦、律賦四例, 又有正體而間出於俳, 變體流於文賦之漸二變例. 次樂府, 全竊郭茂倩而稍益以《宋史·樂志》, 其不選者亦附存其目. 次詩, 取《文選》門類稍增之, 所錄止於晚唐, 宋以後無一字. 次詔誥諸文, 皆分古體、俗體二例. 次爲書表諸表, 則古體之外添唐體、宋體. 碑則正體、變體之外又增一別體. 甚至墓志以銘之字數分體, 其餘亦莫不忽分忽合, 忽彼忽此, 千條萬緒, 無復體例可求, 所謂沿絲而禁.” <文體明辨序說>, 177쪽.

문체들을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 내용과 형식에 따라 분류하고, 문체들의 연원과 변천, 그리고 개성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나열하였을 뿐, 억지로 한 부류로 귀납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문체명변》이 문체론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 명대까지 발전해 온 중국의 다양한 문체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귀납할 만큼 당시의 문체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서사증이 비록 “부득이하게 기록하여 붙였다”고는 말하였지만 속문학을 도외시하지 않고 문체론의 범주에 넣었던 것처럼, 그의 문체론의 범주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지 않았고 문체의 특징에 대한 관심은 폭 넓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문체를 망라하여 개성적인 특징을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이해하고자 하였고, 쉽게 한두 가지 기준으로 귀납하여 문체의 개성적인 특징을 사라지게 하는 성급함을 범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문체명변》의 문체 분류 방법론은 매우 세밀하다고 할 수 있고 혹은 너무 번잡하다고도 할 수 있다. 지적된 바와 같이 그 중에는 종종 오류와 모순이 보이기도 하지만, 서사증이 문체의 분류와 작품의 분류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하였고 문체론의 이론과 비평 방법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사증은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선진시기부터 명대까지 발전해 온 수많은 문체의 종류와 특징을 밝혔고, 문체를 세심하게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문체명변》은 문체론을 피력한 序題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로 수록된 작품들을 통하여 명대 중기까지 발전한 중국의 전통적인 문체들을 일람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하겠다.

#### < 參考文獻 >

- 吳訥, 徐師曾 著, 于北山, 羅根澤 校點, 《文章辨體序說·文體明辨序說》, 太平書局, 1977.  
 陳必詳 著, 심경호 譯,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大學出版社, 1984.

- 안병설, <문체명변고>, 《어문학논총》 제3권,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84.
- 당윤희, <明代의 古文과 時文에 대한 一考>, 《中國語文論譯叢刊》 35집, 2014.
- 당윤희, <명대 시문선집 《문장변체》의 문체론에 대한 고찰>, 《中國學報》 83집, 2018.
- 吳蕙珍, <明代徐師曾《文體明辨》之總集及文體研究價值>, 《건지인문학》 7집, 2012.
- 任競澤, <辨體的文學方法論>,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0年02期.
- 任競澤, <論中國古代辨體發生的文化哲學淵源>, 《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年03期.
- 任競澤, <“文章以體制爲先”的文體論源流>, 《求索》, 2016. 5.
- 賈奮然, <論《文體明辨序說》的辨體觀>,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02期.
- 李樹軍, <《文章辨體》與《文體明辨》的歌行與樂府研究>, 《貴州文史叢刊》, 2008年02期.
- 于景祥, <論徐師曾的駢文批評>, 《廣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1年03期.
- 吳承學, <明代文章總集與文體學——以《文章辨體》等三部總集爲中心>, 《文學遺產》, 2008年06期.
- 吳承學; 何詩海, <從章句之學到文章之學>, 《文學評論》, 2008年05期.
- 吳承學, <宋代文章總集的文體學意義>, 《中國社會科學》, 2009年02期.
- 吳承學; 何詩海, <明代詩話中的文體史料與文體批評>, 《文藝理論研究》, 2008年04期.
- 제해성, 《中國文體分類學的研究》, 국립대만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仲曉婷, 《徐師曾《文體明辨》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馬欣華, 《中國文論中的“文體”關鍵詞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Abstract >

The Stylistic Study on the Anthology 《Wenti Mingbian(文體明辨)》

by Xu Shizeng(徐師曾) of Ming(明) Dynasty

Dang, Yunhui

The anthology of 《Wenti Mingbian(文體明辨)》 is the selected book of prose and poem and also is the stylistic book by Xu Shizeng(徐師曾, 1517~1580) of Ming(明) Dynasty. The book was influenced by 《Wenzhang Bianti(文章辨體)》

by Wu Ne(吳訥). It classified the writing styles into 95 different styles of 《Main Part(正編)》 and 26 styles of 《Appendix(附錄)》.

The “Xuti(序題)” of total 121 styles in 《Wenti Mingbian(文體明辨)》 explained the origin, changes, and creative techniques of writing style and also classified the writing styles into the concept of standard styles(正體) or modification styles(變體), and ancient styles or modern styles. It provided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style.

《Wenti Mingbian(文體明辨)》 also included the writing styles of vulgar literature in 《Appendix(附錄)》. About 330 Cipai(詞牌) of 《Shiyu(詩餘)》 contained in the 《Appendix(附錄)》 are specially noteworthy. The book is considered as more a stylistics book than a anthology, for it developed the esoteric stylistic theories on the lot of classical writings and also expanded the range of stylistics over the many new vulgar literature writings. We can say that the book reflected the aspect of literary trends of Ming (明) Dynasty.

Key Words: stylistics, Wenti Mingbian(文體明辨), Xuti(序題), standard writing style(正體), modification in writing style(變體), vulgar literatur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7. 31	2018. 8. 10	2018. 8. 21	2018. 8. 23	2018. 9. 30